

# '헌법개정지원단' 주내 구성

## 개헌작업 행정적·법률적 뒷받침 野 반발 감안 단장에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추진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급주부터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개헌작업을 행정적, 법률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기능을 담당할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법무차관, 행정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국세청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처장, 총리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여한다.

또 추진지원단 산하에 이병진 국조실 기획처장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단도 설치해 헌법 개정과 관련된 세부 실무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실무지원단은 법제팀, 총괄팀, 대외협력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병진 국조실 기획처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개헌안 및 관련 법률안 작성 작업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오는 31일 1차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개헌추진지원단장을 당초 실 관측했던 총리나 국무위원으로 하지

않고, 국무조정실장으로 정한 것은 기구 구성에 대한 야당의 반발 등을 감안해 실무적 성격으로 운영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병진 차장은 "개헌추진지원단은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원 포인트 개헌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할 것이며 별도의 자문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지원단은 헌법 개정안이 종료될 시점까지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무지원단의 법제팀에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준비하게 될 것이며, 대외협력팀은 국회와의 연계나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작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외에

현행 국민투표법이 투표권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통합선거법과 상충되는 점을 손질하는 한편, 국민투표의 찬반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고집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한해 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도 시정할 방침이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특히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시점을 2월 말로 정함에 따라 2월 중순까지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 구성은 지난 23일 헌법속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관련 기구 구성을 지시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매우 희귀한 개헌을 개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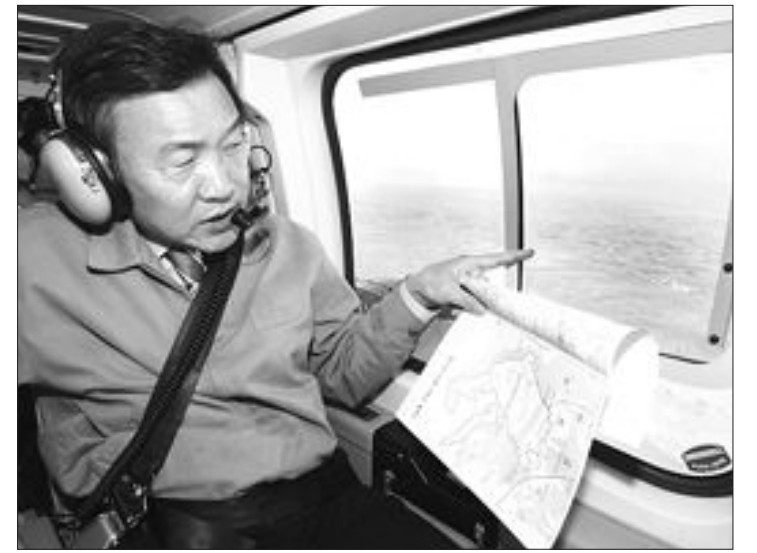
# 손학규 "한나라, 진대제·강봉균 영입해야"

## "범여권 후보 생각 없다"

올 대선에서 범여권 후보의 대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이에 응할 뜻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남 서남권을 방문중인 손 전 지사는 29일 목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여권 후보 제의에 응할 것이냐는 물음에 정색을 하며 "후보 제의가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그는 "어디까지나 본선 경쟁력을 지닌 미래형 지도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정도(正道)를 가자'며 과거의 소지를 차라리 버리고 "후보 제의가" 개인적으로는 고맙다"며 여운을 남겼다.

손 전 지사는 또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영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세계 지향적, 미래지향적인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다. 이를테면 첨단산업 마인드를 지닌 진대제, 개방적인 정통한 전 서울대 총장, 능력있는 강봉균, 통합정치의 리더십을 지닌 손학규가 모이면 드



29일 목포를 찾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헬기를 타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림업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도 자기 혁신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사 경력을 감안해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그의 톤이 높아졌다. "국가균형발전론은 지역의 지지를 얻으려는 인위적인 발상으로 의도가 불순했다. '애연결에 먹이 주듯한' 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혹평했다.

그는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은 특성에 따라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J프로젝트)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지역 민심 추스르기도 잊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與 "누가 제안하든 국회서 논의" 野 "원포인트 개헌은 정치 후퇴"

## ■ 여야 '盧 개헌 의도' 논란

여야 4당 의원들이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안의 정략적 의도 여부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중도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처음처럼'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은 "누가 개헌을 제안했는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노 대통령의 정략적인 의도가 담긴 '원포인트 개헌'은 한국정치를 후퇴시킨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지방분권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개헌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개헌논의 금지령은 시대착오적인 정략"이라고 비판한 뒤 "권력 구조 개편과 함께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선거법 등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탈당 등을 전제조건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보여온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개헌은 정치권이 하기 나름이고 굳이 노 대통령의 의중을 의심할 이유는 별로 없다"며 "만약 한나라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의심되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고 협상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헌을 제안한 뒤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며 "87년 체제를 뛰어 넘으려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데 대통령만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개헌론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작년에 제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에는 그 때 개헌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힘들기 때문이었다"며 "중년에도 못 지낸 제사를 흥년에도 지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만약 노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20년간 제대로 된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고, 정당대표들에게 불가항의 불행이 닥칠 것"이라며 "원포인트 개헌은 정치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최악의 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방승위 노조원 피켓 시위

방승위노조가 노무현 대통령의 방승 위 위상 언급과 관련, 노조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목동 사무실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방승위를 '정통성의 뿌리'가 불투명한 기관"이라고 비판했었다. /연합뉴스

방승위노조가 노무현 대통령의 방승 위 위상 언급과 관련, 노조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목동 사무실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방승위를 '정통성의 뿌리'가 불투명한 기관"이라고 비판했었다. /연합뉴스

# 靑-한나라 '민생회담' 실무접촉

## 오늘 비공개로... 개헌 회담의제 포함 여부 조율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민생경제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30일 고위급 사전 실무접촉을 갖고 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에서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10시께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의제 조율 등을 위한 실무급 접촉을 제안했고, 청와대가 이에 응했다"고 밝혔고 청와대측도 이를 확인했다.

실무접촉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청와대에서 이병완 비서실장과 정태호 정무팀장이, 한나라당측에서 박재완 비서실장과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접촉에서 양측은 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문제를 회담 의제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집중적인 조율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의제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헌 문제 같은 정치적 현안을 배제하고 부동산과 교육 등 민생경제 관련 현

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청와대는 개헌을 포함한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데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 강 대표가 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개헌 반대 담론을 천명하는 차원이란만 개헌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등 의제문제에 관한 태도가 유연해지고 있어 회담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 '경선 준비위' 윤곽

## 위원장 김수한씨 내정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 방식과 시기 등을 결정할 경선준비기구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의 윤곽이

거의 잡혔다.

내달 초 출범할 예정인 경선준비위원회에는 당 상임고문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당직자는 29일 "강재섭 대표가 김 전 의장에게 내정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각 예비후보측 대리인 5명 외에 당내 중

립적 원내·외 인사 4~5명, 외부인사 2~3명 등 모두 13명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중립 인사로는 임태희 여의도 연구소장과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거명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권영세 최고위원과 고홍길 의원 등의 이름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공 시 최 고

아래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7. 5. 3. 1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3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정경근

사건번호	신청인	목적
2006카공 144	장준만 목포시 호남동 67	자기양수표 번호: 다764604180 금액: 금1,000,000원 발행일: 2006년 9월 28일 발행인: 목포농업협동조합
2006카공 173	박진식 전남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 347	자기양수표 번호: 64616434~7 금액: 각금1,000,000원(4매) 발행일: 2006년 9월 11일 발행인: 목포농협 하당지점
2007카공 2	김희주 목포시 옥암동 현대아파트 205-1402 송달주소: 목포시 옥암동 991-4, 7(한국외환은행 목포지점 내)	자기양수표 번호: 가706471932~3 금액: 각금100,000원(2매) 발행일: 2006년 12월 22일 발행인: 한국외환은행 목포지점 최후소지인: 김희주
2007카공 3	최성술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서리 553 송달주소: 목포시 상동 88-7(유한회사 평성건업)	양수여부 번호: 자703129999~자703130000 금액: 미기재 발행일: 2006년 12월 15일 발행인/및지급인: 유한회사 평성건업 지급일: 2006년 12월 22일 지급처: 광주은행 하당지점 최후소지인: 최성술
2007카공 4	권창주 목포시 죽교동 573-26	자기양수표 번호: 바710799791 금액: 금50,000,000원 발행일: 2006년 12월 27일 발행인: 광주은행 하당지점 지급인: 목포시 최후소지인: 권창주
2007카공 5	고재우 광주 북구 우산동 604-8	자기양수표 번호: 라7061885~6 금액: 각금1,000,000원(2매) 발행일: 2006년 12월 27일 발행인: 광주기업은행 유암출장소 지급지: 전라남도 최후소지인: 고재우
2007카공 7	김리복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557	자기양수표 번호: 77823436~44 금액: 각금500,000원(9매) 발행일: 2003년 1월 22일 발행인: 도초농업협동조합 화도지소
2007카공 8	주성순 목포시 산정동 1280-9 비록맨션 103	자기양수표 번호: 가703690650~4 금액: 각금100,000원(5매) 발행일: 2006년 12월 15일 발행인: 광주은행 하당지점 최후소지인: 주성순
2007카공 9	김대남 목포시 명륜동 6-5	당첨여부 번호: 자713761802 금액: 금700,000원 발행일: 2004년 9월 15일 발행인: 김대남 발행지: 목포시 지급일: 2004년 11월 30일 지급처: 신한은행 목포역지점
2007카공 10	김동환 전남 신안군 임자면 풍산리 514-11	자기양수표 번호: 20132556~7 금액: 각금10,000,000원(3매) 번호: 08630162, 08630164~6 금액: 각금1,000,000원(4매) 발행일: 2006년 9월 14일 발행인: 목포주교중앙우체국
2007카공 11	김경숙 전북 완주군 용진면 구여리 330	자기양수표 번호: 라7152484773~4 금액: 각금1,000,000원(2매) 번호: 가74898044~7 금액: 각금100,000원(4매) 발행일: 2006년 12월 29일 발행인/및지급인: 목포농협은행 신도산지소 최후소지인: 김경숙
2007카공 12	장미금 목포시 산정동 1396-9	자기양수표 번호: 가717279828~32 금액: 각금100,000원(5매) 발행일: 2007년 1월 5일 발행인: 목포수협 동부지점
2007카공 13	오연풍 전남 신안군 임자면 풍산리 514-11	자기양수표 번호: 라7154602096 금액: 금1,000,000원 발행일: 2006년 12월 28일 발행인: 목포농협은행중앙 출당지점 최후소지인: 오연풍
2007카공 15	정정환 서울 마포구 창전동 441 정현쌍용스튜디오 101-207	양수여부 번호: 자703432219 금액: 금40,000,000원 발행일: 2006년 12월 14일 발행인: (주)신안개발
2007카공 16	김혜숙 전남 상동 764 현대아파트 102-702	자기양수표 번호: 64605683 금액: 금1,000,000원 발행일: 2007년 1월 10일 발행인: 목포농협은행중앙 출당지점 최후소지인: 김혜숙
2007카공 17	김광배 전남 무안군 봉안면 약곡리 378	자기양수표 번호: 00669415~6 금액: 각금1,000,000원(2매) 발행인/및지급인: 2007년 1월 10일 발행인/및지급처: 목포농협은행중앙 최후소지인: 김광배
2007카공 18	이정수 목포시 산정동 1320-3	자기양수표 번호: 라749855441 금액: 금1,000,000원 발행일: 2006년 12월 14일 발행인: 목포농협 용당지점

##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現서울YBM시사영어학원 **조성훈** 교수 전격 초빙!

여러분을 TOEIC 실력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TOEIC 990점 만점!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 990점 만점반
- 800점 목표반
- 660점 목표반
- 초등중학생반

[www.donga.tv](http://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이 30년 만에 신관으로 장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예술의 거리 → 중앙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입구 ☎(062)222-6253

# 동아외국어학원